

종단

한국불교
종단 7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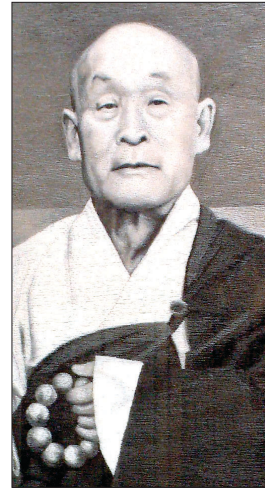
깨달음의 사회화·자비나눔 종교로



태고종 단일계단 합동독도 모습. 198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의 모습. 올해 개산 70년을 맞는다.



주요종단 초대 중정 스님을. 사진 왼쪽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중정 효봉 대종사, 한국불교 태고종 1세중정 대륜 대종사, 대한불교 천태종 총장조 상월원각대조사, 진각종 창종조 회당 대종사, 대한불교 관음종 창종조 태허 대종사.

하고, 교육과 포교를 전담하기 위해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도로 두어 3원 체제로 변화하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춰 교구자치제도를 도입하여 교구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됐다.

이후 조계종은 제도 개선 기반 위에 각 부분별 영역을 전문화시켜 나갔다. 사회복지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전담할 조직으로 사회복지재단을 법인으로 신설하고, 청소년단체로 파라마타청소년협의회를 조직했으며 조계종출판사를 신설하기도 했다.

개혁종단 총무원장 월주 스님은 1995년 취임과 동시에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총무원은 종단의 공식 예산 이외에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기금으로 20억원을 조성해 노후·인권·복지·환경·통일 사업에 투입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나눔의 집'을 경기도 광주에 설립했으며, 외국인 노동자와 장기수들을 초청해 위안부회를 열었다. 이 같은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은 현재의 화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1994년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비구니 스님들의 중앙종무기관 참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의 소임을 맡은 것은 1998년 포교원 사무국장장에 임명된 향원 스님이 처음이었으며 부장급은 2005년 탁연 스님이 처음으로 문화부장을 맡았다. 최근 비구니 스님들의 중앙종무기관 참여가 늘고 있는 있지만, 그 수준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000년대 접어들어 종단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건립해 불교중앙박물관과 중앙종무기관이 한 곳에 입주시키며 일신했다. 또한 불교문화재연구소 설립하여 불교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을 전문화시키고,

템플스테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을 설치했다. 아울러 조계사 일대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전법회관을 건립했고, 공주에 한국문화연구소를 건립해 중앙연구소 시설을 갖췄다. 전문 모금기관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설립해 불교계 자비나눔 문화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태고종, 전통의식 脈이어

현재 태고종은 1970년 대처승 축이 별도로 종단을 설립해 통합종단에서 탈퇴하며 시작된다. 태고종의 가장 큰 특징인 한국불교의 의례와 예술 전통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역사적으로 전래된 전통가사인 흥가사(紅袈裟)를 그대로 수자하고 있으며 범음법패(梵音梵唄)와 불화단청(佛畵丹青) 등 국가 지정 불교 무형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면서 불교문화의 창달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영산재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태고종은 1980년부터 승려합동독도를 실시해 선교육(先教育) 후득도(後得度)제도 매년 약 200여명의 자격 있는 승려가 배출돼 산하사찰에서 수행정진과 전법교화에 진력하고 있다.

태고종은 지방교구와 해외 등에 21개 총무원을 두고 있으며 그 산하에 3,000여 사찰과 7,000여 스님이 있고 간행물로는 종단 기관지인 주간 <한국불교신문>과 일제강점기 한용운스님이 창간한 오랜 역사의 월간지 <불교> 등이 있다.

교육기관으로는 1982년 동방불교대학을 설립해 20여 년 동안 12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태고종은 2004년에 시작한 한국불교전통문화 전승관 건립사업이 2007년 완공되

면서 '시간동 시대'를 연다. 전승관에는 불교문화예술 상설공연장과 불교문화제 및 예술품 전시관, 전통예절 및 인성교육관, 대불불교사상연구소 등을 갖춰 포교와 교육을 위한 불교종합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종단의 지속사업으로 중앙복지원을 설립하여 사찰의 복지단체조직화를 통해 종단의 사회복지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종단 집행부와 반대측의 갈등이 지남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천태종의 중창

한국 천태종의 개창조는 고려 의천 대각국사이며, 중창조는 상월원각대조사(上月圓覺大祖師, 1911~1974)이다. 상월원각대조사는 15세에 출가해 고행수도 끝에 41세에 대가를 이루고 평생을 불교중흥과 중생구제에 진력했다. 1945년에 구인사를 창건했고, 1967년 천태종을 중창했다. 2대 중정은 남대중(1925~1993)대종사이며, 현 3대 중정은 김도용(金道勇, 1943~) 스님이다. 소의경전은 <묘법연화경(법화경)>이며, <법화삼대부(법화문구, 법화현의, 마하지관)>와 <천태사교의>를 중요 경전으로 한다.

천태종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공(空), 가(假), 중(中) 세 개의 진리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삼제원융(三諦圓融)을 근간으로 하여 일념삼천(一念三千), 회삼귀일(會三歸一)의 사상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천태모법의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완성, 불국토 건설, 법성체 결합의 3대 강령과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삼대지표를 실천하는 것을 중지로 삼고 있다.

천태종은 구인사 입교법회를 통해야 신도가 될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도를 정착시킨 것도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다. 한 종단 신도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천태종은 총본산 체제를 갖춘 중앙집권적인 종단 운영을 하고 있다.

현재 천태종은 본산 구인사를 비롯 전국에 200여 사찰이 있으며, 500여 스님(독신비구, 비구니)들이 신도들을 교화하고 있다. 천태종은 특히 부산의 삼광사, 서울의 관문사 등 도심 사찰의 건립과 포교에서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4년제 중립 금강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과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등을 통한 대북 교류에도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각종 창종

진각종은 한국을 대표하는 밀교 종단이다. 진각성종으로 추앙되는 회당(1902~1963)대종사는 1947년 달성군 성서면 농림촌에서 육자진언(六字眞言)을 통해 불법의 도리를 깨달았다. 이후 회당대종사는 1947년 5월 최초의 교화도량을 경북 영일군 기계면 이송정에 마련해 명칭을 '잠회원(儺梅園)'으로 명명했다. 1948년 8월 교명이 교화단체 참회원으로 정해졌다가 다시 1951년 심인불교건국참회원(心印佛敎建國儺梅園)으로 변경했다.

1953년 8월 종단의 체제 완성을 위해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 헌법이 제정됐고, 그 해 12월 대종사의 유법에 따라 종명을 '진각종'으로 명명했으며 1954년 1월 대한불교진각종보살회 유지재단을 설립해 법적인 토대가 완성됐다.

이후 진각종은 한국과 세계 각지에 심인당을 개설했으며 1996년 중립대학인 위덕대학교를 개교했다. 이어 1998년에는 사회

복지법인 진각복지회가 설립됐다.

관음종 창종

관음종은 개산조인 태허 대종사(1905~1979)가 1957년 3월 10일 일승 불교 현정회 설립으로 시작을 알렸다. 1988년 5월 불교재산관리법 폐지에 따라 대한불교관음종으로 종명을 개명했다.

현재 관음종은 재단법인인 공익법인으로 견실한 종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서울복지원을 운영하며 복지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서울불교문화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대학 내 관음장학회를 두어 도제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설립

이 같은 주요종단들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창립해 후후와 국제 불교 교류 등의 공동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967년 5월 국내 불교계 대표 75명이 모여 불교계의 대동단합과 총화를 기하고 호국불교의 사명을 다하고자 대한불교종단협의회를 발기했으며, 1969년 3월 12개 종단 대표 발기인 200명이 모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창립했다. 1975년 18개 종단이 문화공보부에 등록되었다.

당시 연합회에는 원불교 역시 가입해 있었으나, 국내에서는 민족 종교의 입장을 고수하고 해외에서는 불교로 입지를 굳혀 논쟁이 돼 왔다.

1980년 11월 한국불교종단연합회로 명칭을 바꿨으며 1989년 현재의 명칭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됐으며 28개 회원종단으로 확대돼 활동하고 있다.

종단협회는 매년 한·중·일 3국 불교도들의 국제회의인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봉축위원회 활동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주최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종단만 200여개, 이유는?

광복 이후 한국 불교를 변화를 살펴보면 큰 줄기로 내려오는 조계종과 주요종단 설립 이외에도 무수한 군소 종단들이 만들어 졌다는 점이다. 현재 200여 개의 종단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년에 발간한 <한국의 종교현황>에 따르면 연락처가 확인된 종단 수는 265곳이었고 그 가운데 137곳의 현황을 파악해 소개했다. 최근에는 우후죽순 생겨난 '유사 조계종'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많은 종단이 만들어진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종교법인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차차차 동방대학원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현재와 미래-불교 종단의 분과활동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하의 논문에서 "신생종단이 급증하는 시기는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 보존법'이 시행되는 것과 밀접하다"면서 "종교법인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이 무렵 66개의 신생종단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생종단의 등장이라 아니라 이들 종단들의 정체성이 모호해 불교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차 교수는 "현재 한국불교계의 대다수 신생종단은 창종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서 "새로운 이념과 실천방안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불교적인가 하는 의문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신생종단이 한국불교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낮아보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대우전·요사채
산신각·전문시공

-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스틸한옥의 장점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사찰 연등 및 전선(범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동간격·규격합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연등(등포)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엔젤 용품

일지사형 S형 T본리형

LEDHA형 LEDHDB형 건전지 조

▶방생, 탐몰이, 각종 행사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선 시공**